

제4기 이보용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추대

부위원장 박노현 윤중하 위원, 감사 이중희 이문환 위원

포천신문 자문위원회는 10월9일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이보용 위원을 제4기 자문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부위원장에 박노현 위원과 윤중하 위원을 추대했으며 감사에는 이중희 위원과 이문환 위원을 추대했다.

신임 이보용 위원장은 제3기 안병호 총무와 박운중 부총무를 다시 지명해 제4기 총무와 부총무로 선임했다. 양주승 전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자문위원회 고문으로 추대됐다.

또한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포천향교 정기용 전교에 대한 위촉과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포천신문 제4기 자문위원장으로 추대된 이보용 위원장은 "양주승 전 위원장은 포천신문사에서 주축하는 포천군수 후보토론회나 국회의원후보 토론회를 원만히 진행함으로써 포천신문 발전과 포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포천신문이 정론지로 확고하게 발전하고 인정받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보용 위원장은 "포천신문을 사랑하고 포천발전에 기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자문위원회는 다방면에서 많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제3기 양주승 위원장은 "포천신문과 인연을 맺은 지 부위원장 2년과 위원장 4년 등 6

년이 되었다"면서 "큰 대과없이 위원장 직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문위원들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양 전 위원장은 "위원장을 떠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끈한 인연을 생각하고 백의중군 하는 마음으로 포천신문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최호열 발행인은 "포천신문을 2000년8월 인수 후 2000년10월25일 첫 신문발행 행을 한지 7년이 흘렀다"면서 "그 동안 포천노인마라톤대회를 비롯해 포천민속경기대회, 강릉수재민들기, 포천관내 불우시설 방문,

포천군수 및 시장 후보초청토론회, 국회의원 후보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포천신문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양주승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 최 발행인은 "위원장으로서는 4년 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양주승 위원장과 조대행, 김제동 부위원장님 등 제3기 임원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면서 "새로 선출된 이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4기 임원진이 자문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보용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 자문위원회는 10월9일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이보용 위원을 제4기 자문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인터뷰

한전노조 경기북부지부 포천분회장 김환일

“포천지점을 전국 으뜸지점으로 만들겠다”

매 분기마다 간담회 개최 노사화합 다져

한전 포천지점은 매 분기마다 한번씩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화합을 다지고 있다.

한전 포천지점은 노동조합원 52명과 11명 등 63명의 임직원들이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사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김환일 포천분회장은 강조했다.

한전 포천지점은 1966년7월 서울지점 포천 출장소(병급)으로 설치된 이후 1982년6월 의정부지점 포천출장소(병급), 1991년5월 의정부지점 포천출장소(4급), 1993년5월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3급), 1994년1월 의정부지사 포천지점(3급), 1997년1월 의정부지사 포천지점(2급), 2000년9월 경기북부지사 포천지점(명칭변경) 등의 변천사를 가지고 있다.

한전 포천지점에서 노조가 설립된 것은 1993년이다. 한전노조는 자주, 자립, 민주, 인주의 이념으로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모든 불의와 부정을 강력히 배제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전력노조위원장 배전분할 저지 및 신뢰받는 노동조합 건설, 전력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운영방침으로 세웠다.

포천분회는 2007년2월3일 한전 내부 평가항상 및 지점간 단합을 위한 3개 지점(포천, 동두천,



연천) 노사합동 태백산 눈꽃축제 및 등반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2007년2월22일 포천분회 노조 정기총회 개최, 2007년4월20일 포천시 장애인우의 날 차담회 및 생필품 지원, 2007년4월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저소득층 초등학생 사랑의 공부방(선단) 사랑의 집에 대한 누전개소 점검 및 개보수, 한전지사 중고컴퓨터 1대 지원 및 설치, 2007년6월27일 호국보훈의 달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4세대에 생필품 지원 및 전기설비 점검과 교체지원, 2007년9월11일 한기우를 맞이하여 관내 소외계층(실버, 노아의 집)에 협넉를 제거 등 주변환경 개선작업 및 생필품 지원,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한 노사간 화합을 위해 매 주 월요일 노사화합 및 지점 고객서비스 조희시행, 생일자 축하

및 직원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포천분회는 신입직원들의 적응력 향상 및 직원간 유대감 향상을 위해 신입직원 교육일주제 노조간부 면회시행, 매월 노조위원장과 신입직원간의 상시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점 내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악회 등 8개 동호회를 조직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유대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전과 관련된 주된 민원은 정전이나 요금과제라고 한다. 김환일 포천분회장은 고객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처리한다.

한전 포천지점 노조위원장으로서 6년째를 맞는 김환일 위원장은 한전 직원으로 29년째 근무하고 있다. 김환일 위원장은 "포천지점은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신입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업무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간부들은 매년 90%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큰 영향이 없지만 사무실 분위기를 살리는 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활동부부에 대해 포천지점을 전국 으뜸지점으로 만드는 것, 노사화합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사회봉사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들어 말했다.

이보용 기자 forme65@paran.com

*용경자의 세상읽기 · 19

그곳엔 특별한 자원이 있다

강원도 철원에 가면 어머니 품속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 가게 거대한 중에서도 가장 멀리 위치한 철원 동송의 납품은 항상 나의 몫이다.

시원스레 펼쳐진 도로를 지나 꼬불꼬불 산길을 한없이 달려가지만 항상 새로운 것이 계절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봄이면 도로변 새순이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고 여름이면 녹음이 해방대의 사열식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가을이면 황금벌판이 모두가 내 것 같은 착각으로 내 시야를 눈부시게 하고 겨울에는 포근한

고향의 휴식이 느껴지는 것이 꼭 드라이브하는 애인의 마음이다.

그런데 3시간 정도의 고독한 운전이 기다려지는 것은 언제나 나를 따뜻한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반기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이라. 한 잔의 차를 권하면서 "사장님이 바쁘신가요?" 하고 포천의 안부를 묻는 것이 배달맨이 아니라 손님으로써 특별한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

포천의 가까운 곳에도 깨끗하고 좋은 시설의 거래처가 있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무적인 말투로 나누는 대화에는 여유로움보다는 조급함만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어쩔 수 없는 사회생활이기에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일이 즐거울 수도 있음은 철원의 지형적인 특성과 함께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상냥한 말투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이라.

특히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상냥한 말투와 미소 가득한 경리 아줌마의 모습을 그려며 그곳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음에 그녀는 분명 행복하리라 생각을 해본다. 나도 상냥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로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본가가 되어 보련다.



포천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포천시 여성회관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제3회 건강생활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제3회 건강생활 실천대회 개최

맛돌체조, 웰빙댄스, 민요·가요 공연

포천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포천시 여성회관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제3회 건강생활실천대회를 개최했다.

먼저 8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포천시 보건소가 운영하는 '어르신 푸른대학'과 '건강실천교실'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버댄스, 맛돌체조, 웰빙댄스, 민요·가요 공연 등의 경연이 펼쳐졌다.

또 관중 및 당뇨 환자들이 그 간 갖고 돌아온 타이치 체조를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요, 국악, 사물놀이와 고전무용 공연이 관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

했다. 둘째 날인 9일에는 극단 '친구'가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아침 결식 예방, 질병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영양뮤지컬 '백식 공주와 마법지팡이'를 공연했다.

한편 포천시는 노인들의 활기찬 문화생활을 위해 어르신 푸른대학을 개설, 민요와 실버댄스, 고전무용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타이치 운동 교실 등 각종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보용 기자 forme65@paran.com

관학교류 협력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포천시와 교류협력사업 동반협력 관계 도모

포천시는 5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황영철 부시장과 대전대학교 백종택 기획처 기획과장, 포천중문의과대학교 홍을표 사무처장, 경북대학 김경복 학생지원처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관학 교류협력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포천시는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와 포천시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반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관학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매년 초에 관학간의 협력사업을 확정된 후 세부적인 실천 사항에 대한 진

행과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는 실무협의회를 매년 3~4회씩 운영하고 있다.

이날 관학교류 제2차 실무협의회에서는 2007년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14건 중 사업완료 5건, 추진 중 8건, 장기검토 1건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협의했다.

이보용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5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황영철 부시장과 대전대학교 백종택 기획처 기획과장, 포천중문의과대학교 홍을표 사무처장, 경북대학 김경복 학생지원처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관학 교류협력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제4회 포천시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24개 클럽 40개팀 참가 실력 유감 없이 발휘

제4회 포천시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선수와 관중, 포천시 게이트볼협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24개 클럽 40개 팀 2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평소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후회 없는 결과를 얻길 바라며 승부를 떠나 포천시 게이트볼 동호회인 모두가 하나 되는 대화합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용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 광고·기사제보

☎ 031-542-1506~7

추천! 이야기 한마당

당신의 미소 속엔 힘이 있습니다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루어줍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며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미소는 번개처럼 짧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지속되기도 합니다. 미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고 미소의 혜택을 즐기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에서 행복을 꽃피우게 하고 직장에서 호의를 베풀게 하며 친구 사이에는 우정의 징표가 됩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고 낙담한 사람에게는 희망의 빛입니다. 세상 어려움을 풀어주는 자연의 묘약입니다. 하지만 미소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으며 훔칠 수도 없습니다. 미소는 대가 없이 줄 때만 빛을 발하는 것이기에.

★좋은 글 중에서★

날씨와 닮은 우리네 삶(인생)

세상사는 마치 날씨와도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맑게 개인 날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날씨라는 것은 그렇지 못해 태풍도 불고 비바람, 눈보라도 오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어떤 태풍도 한달 이상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도 여간해서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요. 설령 몇 달 동안 계속 햇빛만 내리 쬐는 맑은 날만 계속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날씨가

좋아 햇살만 내리쬐면 그 땅은 이내 사막이 되어버리니가요. 비바람과 폭풍은 귀찮고 혹독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씻은 싸움을 틔웁니다.

당신의 삶 또한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과 아픔이 삶의 여정 중에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시련과 아픔은 필히 당신이라는 거목을 키우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삶은, 오늘 내리는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맑게 개인 내일의 아침을 엿볼 수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문의 011-342-5834)

사/건/사/고

위장결혼 국내 불법 입국 브로커 검거

양주경찰서(서장 김사웅)는 10월1일 오후8시20분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앞 노상에서 중국인들을 국내 불법 입국시키는 댓가로 건당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양주시 거주 내국인 3명을 중국인 3명(조선족 2명, 한족 1명)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97년부터 중국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모집한 여행객 100여명의 여권을 한국이나 제3국으로 밀수입하려는 조선족 등에게 관대한 혐의로 전북지방청 등에

서 4건의 지명수배된 자료 확인했다.

또한 위장결혼을 해준 내국인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일용직무자들로 브로커가 내국인 상대로 목돈을 주며 중국에 가서 중국 상대자와 허위 결혼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 호적계로 허위로 혼인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양주경찰서는 지난 9월 부터 불법 입·출국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자국에서 국내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입국하려는 조선족 등에게 관대한 혐의로 전북지방청 등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시인의窓

문득

백진숙(포천문인협회 회원)

이런 새벽
닭이 쫓는 소리를
들 때마다
늦은 밤
행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짓는 개소리를
들 때마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먼 옛날
새였거나
구름이었거나
한줄기 바람이어서
세상을 휘감고 돌았을

내 영혼을 위하여

〈감상노트〉

사람이 살아가면서 동물(개소리 등)의 소리를 듣고 사유적 감성이 자극된다면, 그 음을 느끼는 귀는 비교적 품질이 뛰어난 이빨로 시스템의 푸른색 문화이다. 때때로 숲 취하거나 맹수의 발을 쓰고 찾아대는 사람의 소리가 문제다. 대개는 구멍이 어둡고 울퉁하기 일쑤지만는 동물의 목구멍만큼 정직한 행위를 하는 살림집이 어디에 있을까. 구멍의 순전한 원리는 맛있게

먹고 굶게 뺏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가끔 흥사하지 못한 어떤 개놈이 생각나니 이 또한 심각한 일러니다. 사람들이 버릴 줄 세상을 두고 개 같이란 소리라 한다. 우울한 아이러니다. 문득 '입은 늦게 귀는 늦게'라는 말이 새삼스럽다. 내일은 명성산에 가 억새소리와 비를 맞이하겠다. 그래서 인간의 따뜻한 살소리가 그리워지는 가을이다. 안 익 수(시인)